

與 “신속” vs 野 “무기한” 추경 심사 일정부터 대립

민중 “18~19일 본회의 처리 위해 당장 상임위 가동 필요”
국민의힘 “불요불급 사업 예산 삭감”... 통과까지 난항 예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본격적인 국회 심사를 앞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여야는 기본적인 일정 조정 등 사소한 사안에 대해서도 갈등을 거듭하고 있다. 7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장 8일부터 각 상

임위를 가동, 오는 10~11일까지 예비심사를 마치고 11일이나 12일쯤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지는 입장이다. 또 오는 15일 예결특위에서 추경소위를 열고, 길어도 3~4일 내로 증감액 심사를 끝낸 다음 추경안을 바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자는 것이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추경안 내용

은 18~1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에 충분한 내용이다. 사업 수가 70개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이 큰 업종에 대한 지원을 추경안에 더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생각이다. 이낙연 대표는 농어업, 화훼, 버스 등 피해 업종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추경 심의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5일 최고위 회의에서 이 대표는 “4차례의 재난지원금 가운데 가장 크고 단일추경으로도 역대 세 번째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당정이 넓고, 두텁게 그리로 사각지

대를 최소화하며 피해계층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은 재난지원금과 함께 저금리대출을 많이 원하고 있다. 특히 신용도가 낮은 저신용 소상공인들은 가계나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는데 애로가 많다고 하소연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당내서 검토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자금지원 보완책까지 추경 사업으로 더해지면 전체 재난지원금 규모가 19조5000억원에서 20조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국민의힘은 일자리 관련 추경 사업이 집중된 환노위에서부터 “12일에 추경안을 상정하자”고 주장하며 민주당이 제시한 일정에 순순히 협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안을 ‘정부여당의 대표용 폼수’로 규정하고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의 삭감을 요구하고,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추가 지원하면서도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정세균 총리, 코로나 백신 치료제 상황점검회의 정세균 국무총리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진통

단일화 시한 18~19일... 일정·방식·여론조사 문항 등 이견

여야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7일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단일화 논의는 일정과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단일화 절차를 신속히 매듭짓자고 주장한다. 높은 대중 인지도를 바탕으로 단일후보 선출이 유력한 자당 박영선 후보를 중심으로 본선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열린민주당은 최소 세 차례의 양자 토론을 거치며 막판까지 단일화 절차를 끌고 가야만 유권자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맞선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아도 막상 김 후보로 표가 가지 않을 것”이라며 “박 후보로 진보 진영 표심이 결집할 것”이라고 표

는 점에서도. 야권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단일화 수싸움은 한층 치열하다. 양당 후보의 격차가 여권 후보들만큼 크지 않기 때문이다. 연초부터 여론조사 지지율 야권 1위를 달려온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후보끼리 신속히 만나 실무 협상의 물꼬를 트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사흘 전 당내 경선에서 극적 승리를 거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지지율 상승세로 역전이 멀지 않았다고 자신하며 느긋한 태도를 보인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우선 이번 주 초 공동선거대책본부를 꾸리고 그동안 경선 후보들로 분산됐던 지지층을 하나로 모으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단일화 협상에서는 토론 횟수, 여론조사 문항 등이 쟁점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출마 기호를 몇 번으로 할지에 대한 기 싸움이 마지막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단일화 시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일인 18~19일이다. 최악의 경우 각자 후보 등록을 강행하고 선거 직전까지 비랑 끝 협상을 지속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연합뉴스

공수처 검사 선발 ‘속도’

인사위 구성... 다음달 첫 수사 가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사위원회 구성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공수처 검사 선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검사 후보자를 검증하는 인사위원회 야당 몫 위원으로 김영중·유일준 변호사를 추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나기주·오영중 변호사를 추천한 지 20여 일 만이며, 공수처가 위원 추천을 처음 요청한 지 한 달 만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 처장·차장과 여야 추천 위원 각 2명, 처장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1명 등 인사위원 7명 가운데 처장 몫 추천 위원을 제외한 6명이 채워졌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재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여당 혹은 야당 측 위원이 모두 반대 의견을 낸다고 해도 의결이 가능하다. 변수는 남아있지만 ‘4월 수사 착수’는 일단 가시권에 든 모습이다. 김 처장은 인사위 추천을 이번 주 마무리할 경우 “4월 중 수사는 무리가 없다”고 장담했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이병훈 “아시아문화원 직원 고용승계 이뤄질 것”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 국회의원은 7일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 해 아시아문화원 노조 등의 ‘고용승계 부칙이 모두 삭제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가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아특별법의 본회의 통과 직후 문체부에 아시아문화원의 인력 등 유무형 자산의 승계를 명시한 ‘시민협업체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 문체부에서는 개정된 법의 부칙에 따라



고용을 승계하고, 공무원직원의 경우에는 전당과 재단의 가능 조정에 따라 별도의 인원조정 없이 전환 배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체부는 아시아문화원 직원 중 전당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경력직 등으로 채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철현, 10년주기 산림조림계획 근거 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갑) 국회의원이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주 의원은 지난 5일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산림청장이 산림조림계획을 10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10년마다 산림조림계획 ▲산림조림실적 및 전망 ▲연차별 조림계획 등을 수립토록 해 기후변화에 따른 식생 변화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산림조림 정책을 수립·추진토록 하고 있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기후변화



에 따른 실질적인 산림조림 정책 부재를 지적했고, 지난 2월 산림청 업무 보고에서는 식생 변화를 고려한 산림조림 정책을 다시 주문했다. 주 의원은 “70~80년대 집중 조림된 우리 산림은 이제 벌기령이 도래해 재조림이 필요한 때이다”며 “재조림 때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과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산림조림계획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삼석, 농수축산림인 재난지원금 지급 대책마련 촉구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이 지난 5일 “농수축산림인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라며 당차원의 대책마련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농해수위 간사인 서삼석(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지난 2월 22일에도 정부와 청와대를 비롯한 당정청에 ‘농수축산림인들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적극 건의했지만 4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 추경안에는 관련 예산이 담겨있지 않다’며 국회 심의단계에서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민주당 김대년 원내대표도 농어업인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제기된 의



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코로나-19 국면에서 농번기 외국인 근로자 입국제한으로 인한 인력수급문제, 먹거리 소비감소 및 학교 급식납품 취소, 농산어촌 관광객 감소로 인한 직접소득감소 등의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농수축산림인들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토지·다가구·주택용지, 임야 매매

1. 상가, 다가구 및 주택용지 ※ 목포남악 준주거, 담양양각 주거2종

- (1) **담양읍 양각리 강변 관방제림, 독일 관광마을 조성지 근접, 광주간 15분 공용주차장 도로 3면 포장 배수로 기반시설됨, 경관수려, 정남향, 교통유지, 답 4220㎡(1,276평) 매 ㎡ 6십5만원**
- (2) **무안군 삼양읍 남악리 준주거지 롯데마트앞 사거리코너 3만여세대 아파트 핵심상권 1천9평 매 75억원**

2. 임야 (전원주택 펜션 농가주택, 휴양소 약초재배 적합)

- (1) **영암읍 학송리 계획관리지역 포함 7만6천㎡ 광주간 35분, 4차 국도 근접 마을 변방 편백휴양림 30년생 1만주, 식재 농지가용면적 5천㎡ 월출산 바라본 쾌적한 자연경관, 전원주택, 펜션, 귀촌자 최상 ㎡ 5천원 급매**
- (2) **화순 도곡 신성리 광주간 20분 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5810㎡(전 포함) 지식강 바라본 마을변방 정남향, 관방제림 경관수려 전원주택, 펜션, 휴양소, 최상 ㎡ 4만원 급매**
- (3)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간 25분,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종전 밭으로 경작 평지 토질 마사토 22,140㎡, 각종 약초 재배 최상 현 지적상 맹지 자연림 소나무 자생, 매 ㎡ 2만원**
- (4) **담양 월산면 중월리 광주간 25분 농림지역 도로접, 62,740㎡ 휴양림 적송 다수 자생 생약 재배 적합, 농가 주택가 ㎡ 5천원 급매**

국민공인중개사 대표 정종기 ☎ 062-268-8289 **광주 북구 두암동 561-5 삼성출플러스 길건너면 통광주빌딩 내**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